

이주의 본당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부님 일정

- * 9월 30일 - 10월 11일 :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
- * 10월 13일 : 미국 본당 건진 성사 집전
- * 10월 21일 - 23일 : 교구 사제 모임
- * 10월 24일 - 27일 : 꾸르실료 참석

● 주일 미사 집전

- 1) 10월 6일 : 김기현 신부님(프린스턴 성당)
- 2) 10월 13일 : 김상균 신부님(외방 선교회)
- 3) 10월 27일 : 김기현 신부님(프린스턴 성당)

● 신부님 영명 축일 및 생일

9월 29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부님 영명축일(10월 4일)과 생일(10월 3일) 축하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을 야외 미사

일시 : 10월 20일, 오후 12시 30분 주일미사
장소 : Laurel Acres Park
1045 S. Church St, Mt. Laurel

●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

매 주일 미사에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이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양로원 미사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3시>

9월 19일(목) 오후 3시에 양로원 미사가 있습니다.

● 2020 신자 주소록 발간

각 구역별로 신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아서 회장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이매향 도나타>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제노베파 구역 : 오늘 미사 후 '사쿠라'에서 있습니다.
<권혜원 로사 가정 주관>
SAKURA : 629 Berlin - Cross Keys Rd. Sicklerville, NJ 08081

● 환영합니다

- 1) 이정지 세실리아 자매님과 김형주 바오로 형제님은 마틸다 구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 2) 길재희 루시아 자매님은 마리아 구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세례 축하합니다

김동휘 요셉과 김경민 야고보 어린이 세례 축하합니다.

● 피아노 팝니다

이보현 자매님께서 이사를 가십니다. 영창 피아노를 \$500에 팝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보현 자매님(732-757-8798)께 연락바랍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파**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비오** 구역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19. 9. 22 (다해) 제1509호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제1독서	지혜서 3, 1-9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2독서	로마서 8, 31ㄴ-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 루카 9, 23-26
봉헌성가	431번 찬미의 송가
성체성가	182번 신묘하운 이 영적
퇴장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순교자들 대축일 9월 22일	연중 제26주일 9월 29일	연중 제27주일 10월 6일
제1독서	박영희 마틸다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신선희 카타리나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김정숙 이사벨라
봉헌자	강옥화, 홍혜자	김경훈, 이문경	

오늘의

묵상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던 성 요한 23세 교황은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생각하면 이웃을 덜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려면 나를 잊어야 합니다.

또 그는 길을 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을 팔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 자신과의 작은 싸움이었기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순교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현시대에는 이런 피의 순교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순교 정신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교가 모여 묵숨까지 아낌없이 내어 놓을 수 있는 큰 순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나 자신을 죽이는 작은 순교입니다. 성경 한 줄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찾는 것도 순교입니다. 내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고자 나의 욕구를 죽일 때 그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해군 장교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이불 먼저 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을 기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이 없듯 순교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아침에 1분 더 일찍 일어나 성경 한 줄이라도 읽는 작은 순교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삼용 요셉 신부)

우리들의

기도

++++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 9월 15일(일) >

봉헌금 \$465.00
교무금 \$750.00
김영두(5,6), 임익철(6-10), 최미라(7-9)

예물봉헌 \$980.00
추석예물(\$880), 글로리아 구역 미사예물(\$100)

Total \$2,195.00